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3월 29일(금) 행사시작(10:00) 이후 보도	
배 포 일		2019. 3. 28. / (총 12매)	
보건복지부 (치매정책과)	과 장	민 영 신	044-202-3530
	담당자	배 기 현	044-202-3532
교육부 (사회정책총괄과)	과 장	이 강 복	044-203-7261
	담당자	박 현 정	044-203-7256
		전 주 현	044-203-7275

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

-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(3.29)-

□ **교육부**(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)·**보건복지부**(장관 박능후)는 3.29(금) 제3차 ‘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’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(허브)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,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,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「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안)」을 논의하였다.

□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‘혁신적 포용국가’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,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○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되었다.

- 치매안심센터*는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* 치매 1:1 상담·등록, 조기검진, 치매쉼터, 가족카페, 맞춤형 사례관리,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

○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치매쉼터 프로그램*에도 직접 참여하고,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확인하였다.

* 치매환자 대상 인지기능 자극을 위한 작업치료의 일종인 퍼즐 맞추기

-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치매어르신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가 참석하였으며, 관계부처의 협력사항도 점검하였다

□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,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「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안)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

< 추진 성과 >

- 각 시군구 보건소(256개)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:1 상담부터 검진, 치매쉼터, 가족카페,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 -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·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 - 다만, 나머지 센터 7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(인프라)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, 현재 상담·검진·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.
 -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에서 2019년 2월말 기준 197만 명이 상담, 검진, 치매쉼터,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, 전체 추정 치매환자(2019년 기준 75.8만 명) 중 절반인 3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.
- * 치매환자 등록률(전체 추정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)
: ['18.2월] 4.6%(2만 5000명) → ['19.2월] 49.3%(37만 명)

< 향후 계획 >

-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(256개)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,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*를 운영할 계획이다.
- *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, 쉼터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

《 치매안심센터 분소 이용 가상사례 》

▶ (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전)

66세 김○○ 할아버지는 기억력 감퇴가 지속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여 A군 보건소 옆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,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절차를 거치신 후 경증 단계 치매로 판정받으셨다. 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○○ 할아버지 가족께 치매쉼터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A군 치매안심센터와 할아버지의 집이 거리가 멀면 가족들도 생업으로 인해 모셔드리기 어려워 치매쉼터에 참여를 하실 수 없었다.

▶ (분소 치매안심센터 이용 후)

A군 치매안심센터는 김○○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읍에 분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교실, 치매쉼터를 운영하기로 하여 김○○ 할아버지도 치매쉼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다. 치매쉼터에 참여 이후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좋아지시고 활력을 찾으셔서 가족들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.

-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·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*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하여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, 예방·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.
- * 생활관리사('19년 1만 1800여 명)가 노인복지관,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(244개소)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대상 정기적 안부확인(주 1회 방문, 주 2회 전화)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·제공

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

< 추진 성과 >

-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*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**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- * 인지지원등급 판정현황 : ('18.1월) 374명 → ('18.12월) 1만 1271명
- ** 장기요양서비스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들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으시는 경우 제공되는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

-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분들까만 적용되었던 **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***하여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.

* **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경감** : (건강보험료 순위 0~25%) 60% 경감, (25~50%) 40% 경감

-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·인력 기준을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**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**(2022년까지 신축 344개 목표) 사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.

《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이용 사례 》

▶ (치매전담실 이용 전)

79세 어르신 이○○ 할머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 입소하였으나, 우울증과 무기력증 심하여 사람들을 멀리하고 식사도 거부하여 마음에 가까운 죽식을 제공하였다.

▶ (치매전담실 이용 후)

치매전담실로 옮기신 후에는 매일 오전, 오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TV를 시청하며 시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말씀하시며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활력을 찾으셔서, 시설에 종종 방문하는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다.

< 향후 계획 >

-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**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** 촉진하기 위해 **시설기준을 개선**하고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), **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** 제공을 위해 **치매전문 요양보호사**를 대폭 양성*할 계획이다.

* **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계획**

(‘15~18년) 7만 2052명 수료 → (‘19~22년) 총 10만 8000명(매년 2만 7000명) 양성

- 또한 **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**(19년 관련 예산 17억4000만 원 편성)를 통해 **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**을 추진하여, 정책 자원 간 **동반 상승(시너지) 효과***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**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**를 제공할 예정이다.

* (**치매안심센터**)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사례관리 제공 (**장기요양**) 어르신 등의 시 안심센터 치매 검진 자료를 연계하여 인정조사 기초 자료로 활용

③ 치매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

< 추진 성과 >

- **중증치매환자**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**산정특례**를 적용하여 **중증치매 어르신이** 계신 가정의 **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** 최대 60%에서 10%로 대폭 줄였다.

- **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***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**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었다.****

* 치매 진단을 위해 대상자의 기억력, 언어능력,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검사

** (상급종합병원 기준 최대치) 정신과 CERAD-K : 20만 원 → 6만5000원
신경과 SNSB : 40만 원 → 15만 원

- 아울러, **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**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검진에 대한 **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게 되었다.**

<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검진 비교 >

검사단계	대상	목적	치매국가책임제 前	치매국가책임제 後
① 단계 선별검사	60세 이상 어르신	고위험군 선별	보건소(무료)	치매안심센터(무료)
② 단계 진단검사	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	치매진단	병원 (CERAD-K - 약 20만 원, SNSB - 약 30~40만 원)	치매안심센터(무료) 병원* (CERAD-K - 6만5000원 SNSB - 15만 원)
③ 단계 감별검사	유소견자	치매 원인확인	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(CT) 5~6만 원 자기공명영상(MRI) 검사 약 60만 원	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(CT) 5~6만 원* 자기공명영상(MRI) 검사 14~33만 원

* 비용지원 :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②단계 검사(8만 원 상당) ③단계 검사 시 상급종합병원(11만 원), 그 외 병의원(8만 원)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 어르신을 단기·집중 치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도 설치 중이다.

< 향후 계획 >

□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(중위소득 120% 이하 대상)할 계획이다.

○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 후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또한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(전체 중 66%)의 치매 어르신·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*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* 민간 치매안심병원 지정 필요 지역, 시설 및 인력기준 확보 지원방안 검토 등

④ 치매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

< 추진 성과 >

□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*을 2018년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여,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후견심판 청구가 17건(심판 결정 4명) 이루어졌다.

*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: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

《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이용 사례 》

64세 어르신 홍○○ 할아버지는 대인기피증이 심하여 이웃들이 걱정하여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사회복지사도 내쫓으시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였다.
홍○○ 할아버지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이웃이 치매안심센터에 피후견인 대상으로 할아버지를 추천하였고 치매안심센터는 퇴직 공무원으로 홍○○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박○○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추천하였으며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였다. 그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던 홍○○ 할아버지는 비슷한 연배인 후견인과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집밖으로 나오게 되었다. 이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홍○○ 할아버지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현재 주간간 급여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.

○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**치매 친화적 사회**를 만들기 위한 **치매 파트너즈**(지역사회 치매환자·가족 지지 자원봉사자) **양성**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7년 대비 18만 명이 증가한 68만 명이 교육 이수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**치매 어르신, 가족을 지지하는 치매 파트너즈**가 되었다.

-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**지역사회가 지원·배려하는 치매안심마을** 조성을 위해, **연구용역 및 시범사업(3개 읍면동)**을 추진하였다.

* 서울 동작구 사당1동, 광주 동구 계림동·산수동, 충북 옥천군 이원면

○ 또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기반도 확장하여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**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***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. 2018년 치매안심센터에서 **1만 1994명의 치매 어르신이 지문을 등록**하였으며 경찰청과 협조하여 **총 6만 5583건**(‘16년 1만 6442건 → ‘17년 1만 8825건)의 **실종예방인식표****도 발급하였다.

* **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** : 치매 어르신의 지문을 사전등록하여 실종·배회 시 어르신의 지문확인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가족(보호자)에게 찾아드리는 제도

** **실종예방인식표** :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옷 등에 부착하여 지역 관공서 직원, 주민들이 배회하는 치매 노인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에 알려 치매노인 실종 방지

< 향후 계획 >

□ **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시범사업**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**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**하여, 올해부터는 **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**받을 수 있도록 하고 **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**하여 (기존 60세 이상) **후견인의 참여 폭도 확대**하여 운영한다.

○ 또한 **치매 파트너즈를 양성**하면서 동시에 **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**하는 방안을 교육부, 행정안전부 등 **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**할 예정이다.

○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,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**모든 지역(256개 기초자치단체)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**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**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**은 “치매에 걸려도,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**돌봄과 지원을 강화**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○ 또한 “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**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.**”고 밝혔다.

□ **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**은 “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**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**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**포용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축**”이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 “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, 독거노인 전수 치매 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**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**하기 위하여, 앞으로도 **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**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**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**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참고> 1.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계획(안)

2.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

참고 1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계획(안)

- 일 시 : '19. 3. 29.(금) 10:00 ~ 11:30 (90분)
- 장 소 :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
(주소 : 중원구 금상로 137, 노인보건센터 4층)
- 참석자
 -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(주제)
 - 보건복지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
 - 성남시장
- 안건
 -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부처합동)
 -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의 '삶의 영역' 중 '노후' 관련 '치매국가책임제' 현장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

□ 일정 개요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40	40' 【센터 및 시설 참관】 - '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' 참여	지하 1층, 4층
10:40~10:47	7' 【부총리, 복지부장관 모두말씀】	사회 :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
10:47~10:52	5' 【안전 보고】 「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	※ 비공개 진행 보고자 : 복지부 인구정책실장
10:52~11:25	33' 【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】	※현장 관계자 참석 (향후 스틸컷 배포)
11:25~11:30	5' 【부총리, 복지부장관 마무리말씀】	

참고 2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

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

치매안심센터-초진검사 실시,
상담 후 대상자 등록, 욕구파악,
치매어트신 및 가족 맞춤형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


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절차



치매검사결과에 따른 서비스 내용



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

